

절세위인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주체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 백두산!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영웅이 이 땅을 진감하고있다. 조국해방 일흔한이 되는 이 뜻깊은 8월경 백두산 줄기줄기 피어던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던 자욱을 심장으로 더듬으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오르고오르는 백두산! 언제부러졌는가. 삼천리역이 뻗어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이 아니라 민심을 기어민 혁명의 성산으로 그 이름 만방에 떨치게 된 것은. 《백두산에 장수별 솟았다》, 《백두산 호랑이 천하를 굽어보며 따오...》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약소민족의 비운을 통탄하던 이 나라 백성들의 피뎠던 가슴마다에 백두산전설이 새겨진 그때로부터 백두산은 절세의 의과자, 단교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상과 함께 빛나는 조국해방의 등대, 혁명의 성산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신 역사의 행운을 지닌 그때로부터 백두산은 민족의 영웅을 낳고, 새기를 이어 억척드높이는 신념의 성세, 승리의 상징으로 원한의 심장에 솟아 빛나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과 더불어 이 땅에는 주체혁명의 새 력사가 펼쳐져 조국해방의 만세소리, 전승의 축포소리, 사회주의 건설의 북소리가 거저오르게 되었으며 백두산의 혁명적 동을 이어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장엄한 전환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백두산으로 향할 이 나라의 민심이 그

빛을 강렬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백두산에 자기의 운명과 행복, 조국과 민족의 운명, 모든 승리와 번영이 다 있기때문이다. 오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가 천만군민의 삶의 주체가로, 선군조선의 대항장공으로 된 이 비상한 현실은 바로 백두산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걸출할 수 없는 민족의 가장 귀중한 만년보배이며 최후승리의 기치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백두산은 주체적인 혁명력량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전하는 조신혁명의 정스러운 기념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할 력사의 산입니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끈을 풀고서 어머니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으로 선군혁명의 새 역사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백만대군과 전쟁을 신로하시고 항일대전적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오신 혁명적 그 자욱자욱을 고이 안고 솟아 빛나는 백두산의 증전자 백두산, 백두산은 조신혁명의 사명부였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의 보물고인 민족의 중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었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자주정신, 자력갱생정신으로 조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언제인가 어머니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조신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조신의 찬찬한 미래가 밝아온 혁명의 성지이며 조신의 혁명적기상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한몸에 안고있는 유서깊은 산이라고, 백두산이 영원하듯이 백두산에 시련을 두고 자랑하는 우리 혁명도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참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으로 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이야말로 이 땅우에 승리와 번영의 새 력사가 민족민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중의 최고업적으로 된다. 백두산은 주체혁명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백두산전국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만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성세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선군혁명의 기념비이다. 이 세상에 눈을 뜨는 기념비에는 있어도 조국해방의 정수인 백두산이 없다. 그러나 선군조선에는 있다. 위대한 력사, 찬란한 미래를 다 안고 주체혁명의 기치로, 선군혁명의 기치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그 이름도 성스러운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오랜 력사가 력력히 오늘도 다가오는 미래가 환히 보인다. 위대한 력사, 위대한 전통은 영원한 승리의 만년보배이다. 백두산에서 마하된 혁명전통이 있어 이 땅에는 백전백승의 력사만이 흐를것이

며 부강번영의 시대만이 펼쳐질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자! 이것이 바로 선군조선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민심이다. 지난 4월 칼바람몰아치는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언하시였다.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이다! 백두산에서 울려오던 위대한 선언은 정일봉의 우뢰소리처럼 천만군민의 심장을 광항 두드렸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 온 나라를 백두산정령봉으로 부름부름 뭉개어주게 하여야 한다. 백두산으로 달리는 민심을 막을수 없는 백두에서 개척된 최후승리의 길을 막을수 이 세상에 없다. 백두산은 억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위대한 력사의 기념비로, 최후승리의 기념비로 지구의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 백두산전국의 모든 영광을 축복할 것이다. 김 영 철

혁명의 교과서, 인생의 교과서

상상은 위인들이 남긴 회상록들이 많다. 하지만 어머니수령님의 회고록처럼 혁명의 진리, 인생의 리치가 그릇될수록 고고 심오하게 밝혀주는 위대한 대배과서는 없다. 어떤시절부터 나라를 빼앗긴 겨레의 슬픔을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으신분, 나라가 있어야 인간의 삶도,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철리를 누구보다 깊이 절감하신분,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업무를 실천하신분,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년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으면 백년 패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겠다》, 《마주한혁명전적지에 새겨진 구호문헌이 우리의 가슴을 친다.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싸울 불굴의 의지를 안고 투사들이 새긴 신념의 글씨이다. 사명관정지를 따르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

사명관정지만 계신단 조국에 반드시 배반된다. 이런 신념, 이런 의지가 구호문헌에도 담겨져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산들에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을 선열들의 드림없는 의지가 담긴 구호문헌이 얼마나 많은가. 구호문헌은 깊은 산중에 잊혀져 있다. 어려운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화상기 《하하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여 물과 구를 열어제었다는 것이다. 역사나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 항일빨치산투사들의 넋을 이어주는 혁명의 피줄기가 나뉘는가. 본사기자 전 경 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겠다》, 《마주한혁명전적지에 새겨진 구호문헌이 우리의 가슴을 친다.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싸울 불굴의 의지를 안고 투사들이 새긴 신념의 글씨이다. 사명관정지를 따르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

사명관정지만 계신단 조국에 반드시 배반된다. 이런 신념, 이런 의지가 구호문헌에도 담겨져있다. 참으로 이 나라의 산들에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을 선열들의 드림없는 의지가 담긴 구호문헌이 얼마나 많은가. 구호문헌은 깊은 산중에 잊혀져 있다. 어려운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화상기 《하하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여 물과 구를 열어제었다는 것이다. 역사나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 항일빨치산투사들의 넋을 이어주는 혁명의 피줄기가 나뉘는가. 본사기자 전 경 서

수필 개선문 앞에서

개선문앞에 설 때마다 숨떡해 지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과 민족의 위대성이 수령의 위대성, 당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할것입니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나라를 쫓아온 끈을 풀고서 어머니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으로 선군혁명의 새 역사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백만대군과 전쟁을 신로하시고 항일대전적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오신 혁명적 그 자욱자욱을 고이 안고 솟아 빛나는 백두산의 증전자 백두산, 백두산은 조신혁명의 사명부였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의 보물고인 민족의 중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었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자주정신, 자력갱생정신으로 조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헤쳐오신

개선문은 우리 민족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할 력사의 산입니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할 력사의 산입니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할 력사의 산입니다.

개선문은 우리 민족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할 력사의 산입니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할 력사의 산입니다.

선군은 우리 생명, 우리 생활

선군은 우리 생명, 우리 생활

선군은 우리 생명, 우리 생활

한몸바쳐 빛내이리, 소중한 이 땅을!

한몸바쳐 빛내이리, 소중한 이 땅을!

한몸바쳐 빛내이리, 소중한 이 땅을!

박근혜는 그 어떤 요설로도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박근혜는 그 어떤 요설로도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박근혜는 그 어떤 요설로도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광명대 대중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마다에 새겨가고있다. -개선문광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누구나 조국의 소중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시각이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한몸바쳐 빛내이리, 소중한 이 땅을! 가슴 붙여주는 뜻깊은 8월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자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도덕의리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이 땅이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을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오직 백두산과 백두산의 기치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자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도덕의리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이 땅이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을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오직 백두산과 백두산의 기치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자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도덕의리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이 땅이다.

한몸바쳐 빛내이리, 소중한 이 땅을!

한몸바쳐 빛내이리, 소중한 이 땅을!

박근혜는 그 어떤 요설로도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을 통해 업고 북침핵전쟁연습과 배려살포와 《인견》소동을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하위 부부장대 《명화공민》 조성과 철도 도로 건설, 《리산가족》 상봉과 체육문화교류 등 잡다한것들을 꺼내내서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히 파면치한 셈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헌과 중대조직투쟁을 편이내 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외태당은 년초부터

미국을 통해 업고 북침핵전쟁연습과 배려살포와 《인견》소동을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하위 부부장대 《명화공민》 조성과 철도 도로 건설, 《리산가족》 상봉과 체육문화교류 등 잡다한것들을 꺼내내서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히 파면치한 셈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헌과 중대조직투쟁을 편이내 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외태당은 년초부터

미국을 통해 업고 북침핵전쟁연습과 배려살포와 《인견》소동을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하위 부부장대 《명화공민》 조성과 철도 도로 건설, 《리산가족》 상봉과 체육문화교류 등 잡다한것들을 꺼내내서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히 파면치한 셈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헌과 중대조직투쟁을 편이내 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외태당은 년초부터

미국을 통해 업고 북침핵전쟁연습과 배려살포와 《인견》소동을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하위 부부장대 《명화공민》 조성과 철도 도로 건설, 《리산가족》 상봉과 체육문화교류 등 잡다한것들을 꺼내내서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히 파면치한 셈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헌과 중대조직투쟁을 편이내 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외태당은 년초부터

미국을 통해 업고 북침핵전쟁연습과 배려살포와 《인견》소동을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하위 부부장대 《명화공민》 조성과 철도 도로 건설, 《리산가족》 상봉과 체육문화교류 등 잡다한것들을 꺼내내서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히 파면치한 셈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헌과 중대조직투쟁을 편이내 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외태당은 년초부터

미국을 통해 업고 북침핵전쟁연습과 배려살포와 《인견》소동을 비롯한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하위 부부장대 《명화공민》 조성과 철도 도로 건설, 《리산가족》 상봉과 체육문화교류 등 잡다한것들을 꺼내내서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히 파면치한 셈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헌과 중대조직투쟁을 편이내 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외태당은 년초부터

